



# 가나안 이야기

「 약속의 땅을 향한 행복한 동행 」

다비드 • 하다스 • 담희 • 단아 • 도하 • 다운

shalom! 예루살렘에서 문안드립니다. 벌써 올해의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2016년을 시작하지 었그제 같은데 시간은 참으로 빨리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요즘 한국이 처한 혼란과 위기 속에서는 너무도 더디만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루속히 오늘의 난국이 '옳음' 가운데 해결되고 무엇보다 이일로 답답함과 분개했을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한국보다는 아니어도 이스라엘 역시 제법 쌀쌀해 졌습니다.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전 이스라엘 전국에 걸쳐 200곳 이상의 방화가 있었습니다. 그로인한 피해는 매우 컸습니다. 초막절이 지난지 한달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아 너무도 건조한 상황이어서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많은 양의 비가 며칠간 내렸습니다. 모두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비를 통해 이번 화재는 완전 진화 되었고 또 번짐도 일단락 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하고 저희들의 안전을 염려해 주셨던 그리고 또 기도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 가족 살아가는 이야기

지난해 안식년 기간 중 저희에게 허락된 많은 축복들 가운데 가장 큰 선물 '다운'이가 곧 있으면 첫 돌을 맞게 됩니다. 지금껏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주시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만한 축복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아이들은 홈스쿨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홈스테이 수준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아이들이 해야 할 역할과 책임에 대한 달란트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달란트 잔치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아이들에게 차칫 실망감을 안겨준다면 이어질 달란트 잔치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지고 또 그로 인한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도 소홀함이 있을 것 같아 '동기부여' 차원에서 과감하게 투자해 나름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동안 자신이 노력해서 받은 달란트로 이것저것 구입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사먹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달란트 잔치를 통해 느낀 점은 '동기부여'가 확실하면 그에 대한 태도도 노력도 분명히 차이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부단 아이들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지요. ^^

## ■ 베두원 마을 이야기

지난주까지만 해도 베두원 마을에 가장 큰 어려움은 태양광 전기시설(배터리)이 고장이 나서 몇 달째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의 전기가 있고 없고는 기나긴 밤을 보내야 하는 그들에게는 절실할 이었던 것입니다. 이브라힘 형제는 자주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지만 사실 수리비용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단체의 도움을 받아 수리비용 전액을 지원해 주시겠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침내 지난주 태양광 전기(배터리)를 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낮에 충전한 전기로 밤을 환히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두원 마을 사람들 모두가 행복해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 저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의 바람은 베두원 마을에 이처럼 더 나은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듯 이제 그들의 영혼이 잘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 ■ G.T.I 사역 이야기

지난 달 기도편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함께하는 이가 한명 더 늘었습니다. 함께해서 더 가볍고 든든한 발걸음이 이번 달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닌(팔레스타인 지역)' 이라는 도시를 방문해 그곳에서 다양한 만남과 교제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많은 이들이 있지만 이번 여정에서 얻은 성과라고 한다면 다음에 또 찾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저희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남이 즐겁고 기대되지 않는다면 그처럼 또 어려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제닌' 이라는 도시는 팔레스타인 도시들 가운데 무슬림 강성이고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많은 테러범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 늘 경계하고 주목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곳을 가벼운 마음으로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이번 방문이 저에게는 두 번째 방문인데 처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느낀 점은 익히 알려진 내용과 실체가 다르다는 것을, 그 편견의 차이를 현장에 와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두 차례의 방문과 제한된 만남이 전부를 대변해 줄 수는 없지만 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이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과 사선이 배제된 것이라면 직접적인 경험을 배제하고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누구를 만났든 또 어디를 가든 그 마음과 자세를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담대함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광야에 흐르는 물줄기



달란트 잔치



다비드의 학교수업



타미르 영어수업



태양광 전기 수리



팔레스타인 소방관과 '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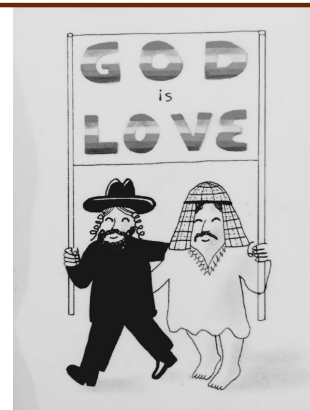


새로운 만남과 교제의 즐거움

「 기도제목 」 “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1:21)

1. 보내신 자리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2. 요압 아저씨 가정과 베두원 마을 사람들이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소서
3. 올 한해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고 계획하는데 필요한 열정과 지혜를 주소서
4. 사역과 생활에 필요한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5. 가족 구성원 모두 건강(아이들 비염)하게 이 계절(우기)을 보낼 수 있도록

※ 여러분의 기도제목을 보내주시면 이곳에서 저희도 함께 중보 하겠습니다.



「 후원정보 」

- 일반헌금: 다비드/하다스(담희,단아,도하,다온)
- 외환(하나)은행: 181-04-01159-983
- 예금주: 침\*해\*선 / TEL : 02-3775-4471
- 목적헌금: 타마르 프로젝트
- 외환(하나)은행: 990-007955-919
- 예금주: 침\*해\*선 / TEL : 02-3775-4471
- 1) 재정담당 : 최은섭 (010-5334-7856),  
E-MAIL: [0903ces@naver.com](mailto:0903ces@naver.com)
- 2) 문서담당 : 박은성 (010-3745-2025),  
E-MAIL: [mindlle-1@hanmail.net](mailto:mindlle-1@hanmail.net)

「 연락처 」

※ 주 소 :  
Eli Tavin 22/10, Jerusalem 9770001, Israel.  
Rev. JAESUK JUNG

※ 연락처 :  
■ 휴대폰: +972-(0)58-6623513 (다비드)  
+972-(0)58-4623514 (하다스)  
■ 집전화 : 070-8632-0432  
■ E-MAIL: [korielpo@gmail.com](mailto:korielpo@gmail.com)

# 이스라엘로 보내는 소포는 우체국 일반 소포(예제:CP123456789KR)만 가능합니다. EMS는 세금문제로 어려움이 많습니다.